
전위가 못된 청춘은 어디로 가는가
- 『전위시인집』의 주변에서

최희진(서울대)

/ 목차

1. 서론
 2. 혁명을 위한 감정의 규율: 『전위시인집』의 감정 구조
 3. 투쟁성의 표상으로서의 ‘전위’와 ‘청춘’: 『전위시인집』의 기획 의도
 4. 전위가 되지 못한 청춘: 『전위시인집』의 바깥
 5. 결론
-

1. 서론

스스로 옳다고 믿는 이념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과연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도 좋은 것일까? 죽음으로써 간직해야 할 이념이란 도무지 어떤 부류이며, 얼마만큼 지고(至高)한 것일까? 명리나 좃고 잇속이나 쟁기려 드는 범부들의 이런 의문에는 아랑곳없이 꽃 같은 젊은 목숨들이 역사의 용광로 속으로 거침없이 뛰어들어 갔음을 우리의 현대사는 수없이 기록하고 있다.¹⁾

해방기 문단에서 ‘인민의 계관시인’으로 칭송받았던²⁾ 유진오(兪鎭五, 1922~1950)의 시와 삶을 논하는 장면에서, 정영진은 위와 같은 질문을 제기한다. 이 시절의 청년들은 시대와 현실의 전위로 나아가는 모습으로 문학과 역사에서 그려졌다. 그런데 이와 같은 청년의 형상은, 2020년대 한국 사회에서 통용되는 청년상과는 적지 않은 간극을 드러낸다.³⁾ 이양숙이 지적하듯 근현대사에서 청년은 미래를 지향하는 가장 진취적인 집단으로 칭송되었으나, 오늘날 청년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타자로 전락하였다.⁴⁾ 그저 시대가 다르기 때문일까. 아니면 이 차이의 사이에는 무언가 더 설명되어야 할 것이 있는 걸까. 본고는 이 사소한 의문에서 출발한다.

질문을 바꾸어 보자. **해방기의 청춘을 청춘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해방기의 강인한 청년과 현재의 방황하는 청년은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인가, 아니면 해방기의 문학 작품에 재현된 청춘의 **표상이** 지금과 조금 달랐던 것뿐인가?⁵⁾ 이 문제에 대한 실마리를 찾기 위해, 본고

1) 정영진, 「육탄시인 유진오의 비극」, 『통한의 실종 문인』, 문이당, 1989, 51쪽.

2) 임화, 「계관시인-옥중의 유진오 군에게」(1946.9.5.), 『찬가』, 백양당, 1947, 62~65쪽.

3) 이지영·이소정이 지적하듯, 2020년대 대한민국의 ‘청년’은 과열 경쟁 속에서 절망, 불안, 포기, 무기력 등에 만성화된 존재로 표상되고 있다. 이지영·이소정, 「대학 글쓰기 수업을 통한 담론 주체로서의 청년 인식 연구」, 『리터러시 연구』 16-5, 2025, 한국리터러시학회, 176쪽.

4) 이양숙, 「메트로폴리스의 시공간과 청년의 감정-21세기 초 도시청년의 감정구조」, 『외국문학연구』 62,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2016, 92~93쪽.

5) ‘청년’과 ‘청춘’이 젊음을 의미하는 서로 다른 표현으로 이해되기는 하지만, 사실 ‘청년’과 ‘청춘’이라는 단어가 완전히 동일한 함의를 갖지는 않는다. 김지영의 지적처럼 ‘청년’이 젊은이의 진취적 사회적 의지력과 활동력을 포괄적으로 표상하는 어휘였다면, 청춘은 ‘청년’이 표상하는 사회적·정치적 주제성의 일부를 개인적·문화적·정서적인 방향으로 굴절시킴으로써 젊음의 또 다른 일면을 가시화했다. 그럼에도 해방기 좌익 신진 시인들을 논하는 장면에서 이 둘은 면밀히 구분되기보다는 혼용되는 경향을 보인다. ‘청년’의 사회적·정치적 추진력과 ‘청춘’의 감정적 고양 이들에게 모두 요청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해방기 담론장에서의 단어 사용을 존중하는 선에서 ‘청춘’, ‘청년’, ‘젊음’의 개념을 혼용하기로 한다. 김지영, 「식민지 대중문화와 ‘청춘’ 표상」, 『한국학』 34-3, 한국학중앙연구원, 2011, 146~147쪽 참고.

는 해방기에 좌익 문단에서 신진 시인으로 호명되었던 김광현·김상훈·이병철·박산운·유진오의 앤솔로지 『전위시인집』 및 그 주변의 지형도를 탐색하고자 한다.⁶⁾

『전위시인집』의 다섯 신진 시인들은 해방기 문단에서 “청년”과 “청춘”의 이름 아래 직접적으로 호명된다. 이들은 선배 시인들로부터 “시단의 결사대”의 의무와 사명을 부여받는다.⁷⁾ 그들 스스로 역시 ‘벽차는 젊음’을 현실 투신의 동력으로 지시한다.⁸⁾ 그런데 이 시기의 모든 청춘들이 그와 같을 수 있었는가? 해방기 청춘의 모습은 단일했는가? 적어도 해방기의 모든 청춘이 신념을 갖고 현실에 투신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한 국문학자의 회고가 그 사실을 보여준다.

그 무렵 좌-우 양파의 이데올로기 대결은 우리가 다닌 학교 내에도 거센 회오리를 일으켰다. 한차례 민주학련계의 스트라이크가 벌어지고 나면 그 뒤를 이어 전국학련측의 사나운 역습이 일어났다. 그런 틈바구니에서 그 어느 갈피에도 버젓이 서지 못할 정도로 나는 어린 마음의 겁나한 갈대였다. 그래 양측 모두에게 냉소-편찬의 대상이 되었을 때 내가 기떨 언덕은 튼나는 대로 사서 모으거나 또는 필사한 시집, 문학 전집들뿐이었다.⁹⁾

위 글에 나타나는 것은 끊어오르는 피로 현실에 맞서는, 자신의 신념에 대한 믿음으로 과감한 현실 투신을 감행하는 청춘의 상이 아니다. 나타나는 것은 현실 이념의 틈바구니에서 방황하는 청춘의 모습이다. 위 인용문은 그러한 청춘이 없지 않았음을, 존재했을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그러한 젊은이는 ‘전위’로 칭해지지 못했는지언정 분명히 있었다.¹⁰⁾ 그럼에도 해방기 시단의 전면에서 이들의 모습은 충분히 제시되지 않은 듯 보인다. 해방기 문학과 현실의 전면에 등장한 ‘청년’의 표상 속에는, 위 김용직의 글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망설임이나 연약함의 자리는 쉽게 주어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해방기 문단의 청춘 담론이 무엇을 가시화했고 무엇을 비가시화했는지, 특히 좌익 문단의 기획이 어떠한 청춘의 모습을 선택하고 배제했는지 물을 수 있다. 이 문제를 논구하는 데 있어, 『전위시인집』에 대한 선행 논의들은 몇 가지 흥미로운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전위시인집』 앤솔로지 및 여기에 참여한 개별 시인들의 시에는 현실 참여적인 의지가 드러난다.¹¹⁾ 둘째,

6) 해방기 현실의 ‘청년’은 원칙적으로 좌·우익을 모두 포함한다. 하지만 본 연구는 조선문학가동맹 및 『전위시인집』을 중심으로 한 좌익 청년의 상에 논의의 범위를 한정한다. ‘강인하고 용기 있는 전위’로서의 청년상을 구축하려는 의도를 선명하게 드러낸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대상으로 적합하다 판단되기 때문이다. 해방기 좌익 청년단과 우익 청년단의 투쟁사에 대해서는 이기훈, 『청년아 청년아 우리 청년아』, 돌베개, 2014, 249~270쪽 참고.

7) 오장환, 「발(跋)」(1946.10.8.), 이병철 외, 『전위시인집』, 노농사, 1946(이하 『전위시인집』), 72쪽.

8) 유진오, 「누구를 위한 벽차는 우리의 젊음이나?—국제청년데-에」(1946.9.1.), 『전위시인집』, 66~70쪽.

9) 김용직, 「머리말」, 『해방 직후 한국시와 시단의 형성 전개사』, 푸른사상, 2009, 31쪽.

10) 『전위시인집』 및 해방기 좌익 문단을 주요 대상으로 삼는 논의의 특성상, 본 논문에서의 ‘전위’는 미학적 전위가 아닌 정치적 전위를 일차적으로 지시한다.

11) 강계숙, 「‘시인’의 위상을 둘러싼 해방기 담론의 정치적 함의」, 『민족문학사연구』 64, 민족문학사학회·민족문학사연구소, 2017, 435~469쪽; 강계숙, 「해방기 ‘전위’의 초상 - 『전위시인집』의 특징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45,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7, 31쪽; 김양희, 「해방기 시에서 ‘전위’의 의미」, 『한국학연구』 58,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6, 103~137쪽; 박용찬, 「해방기 시의 현실인식과 논리」, 역락, 2004; 송희복, 「해방기 시단의 청록파와 전위시인파 비교 연구」, 『한국문예비평연구』 37,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2, 113~145쪽; 신동욱, 「해방기 전위시인의 시적 주체 형성 전략」, 『동아시아 문화연구』 52,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2012, 267~300쪽; 한정호 편, 『김상훈 시연구』, 세종출판사, 2003.

그럼에도 종종 관측되는 사항인데, 『전위시인집』의 전이나 후에 발표된 이들의 개별 시편들은 의외로 서정성과 감상성을 보여준다.¹²⁾ 그리고 셋째, 사실 이 신진 시인들을 『전위시인집』의 이름 아래 묶어낸 것은 그들 자신이 아니었다.¹³⁾ 이 지점에서, 『전위시인집』의 젊은 시인들이 스스로를 전위시인으로 자임했다기보다는, 시대와 조직에 의해 그렇게 호명·호출된 것이었다는 정우택의 지적은 주목을 요한다.¹⁴⁾ 아울러 『전위시인집』에서의 ‘전위’의 선언이 사실 신진 시인들이 아니라 선배 시인들에게 일임된 모양새였다는 강계숙의 지적 역시 착안점을 제공한다.¹⁵⁾ 이들이 외부로부터 호명된 존재였다면, 이들을 호명한 자들이 이들에게 기대한 특정한 모습이 있었으리라는 추론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는 해방기 좌익 문단이 ‘전위’와 ‘청년/청춘’의 이름 아래 신진 시인들을 어떠한 주체로 구성하고자 했으며, 그 과정에서 어떠한 감정을 요청하거나 배제했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특히 『전위시인집』에서 특정한 청년상과 감정이 강하게 초점화되는 동시에, 이에 부합하지 않는 청년 표상과 감정이 비가시화되는 양상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전위시인집』에 수록된 신진 시인들의 시편을 중심으로, 『전위시인집』의 시편 속에서 특정한 감정이 공통적으로 호출되거나 삭제되고 있음을 밝힌다. 3장에서는 『전위시인집』에 수록된 기성시인들의 발문 및 혁명의 감정 정치학을 중심으로, 좌익 이념이 청년의 이름 아래 신진 시인들에게 요구했던 감정 구조의 면면을 검토한다. 4장에서는 『전위시인집』의 바깥에 놓인 신진 시인들이 여전히 감성성의 영역을 견지하고 있었음을 확인함으로써, 『전위시인집』의 이념적 기획과 현존하는 청년의 내면 사이에 균열이 발생한 양상을 살핀다. 이를 통해 해방기 청년의 내면이 단일한 서사로 정리될 수 없었음을 살피고, 전위와 청년의 이름 아래 작동하고 있던 감정 규율의 구조를 가시화해보기를 기대한다. 이것은 국가에 의해 직접적으로 주권을 박탈당한 주체들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다. 다만 해방기 국가와 이념의 이름 아래 특정한 감정을 요청받고, 다른 감정은 은폐하거나 굴절시킬 수밖에 없었던 주체들에 대한 이야기이다.

2. 혁명을 위한 감정의 규율: 『전위시인집』의 감정 구조

이 장에서는 ‘전위’라는 정치적 호명이 실제 시편 속에서 어떠한 감정의 형식으로 구체화되었는지를 살핀다. 특히 『전위시인집』의 신진 시인들이 ‘청춘’이자 ‘전위’로 호명되었던 조건을, 그들의 시에서 공통적으로 추출되는 감정 구조를 통해 분석한다. 이를 살피는 데에는, 한국 근대 사

-
- 12) 김효신, 「실종 시인 유진오(兪鎭五)의 시세계 소고」, 『한국전통문화연구』 13, 대구가톨릭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9, 77~98쪽; 정영진, 「육탄시인 유진오의 비극」, 『통한의 실종문인』, 문이당, 1989, 49~106쪽; 정영진, 「시인 이병철의 잃어버린 귀향도」, 같은 책, 205~227쪽; 정영진, 「김상훈, 변신의 일생과 갈등의 시」, 같은 책, 229~272쪽; 최현식, 「다풍지대(多風地帶)의 사상과 노래-해방기 김상훈 시의 문화정치학」, 『인문과학』 103, 연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5, 157~194쪽; 한경희, 「해방기 이병철 문학 연구」, 『영주어문』 55, 영주어문학회, 2023, 265~288쪽.
- 13) 『전위시인집』이라는 앤솔로지로서 묶고 시단의 신세대로 호명된 데에는, 기성 시인들의 부채감 또는 자기비판 문제를 통과하고자 하는 내밀한 욕망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었다. 유성호, 「해방기 시의 세대론」, 『한국시학연구』 33, 한국시학회, 2012, 80쪽; 이기성, 「해방기 시에 나타난 가족주의와 국가주의-‘자기비판’ 문제를 중심으로」, 『상허학보』 26, 상허학회, 2009, 160~165쪽.
- 14) 정우택, 「‘한하운 시집 사건’(1953)의 의미와 이병철」, 『상허학보』 40, 상허학회, 2014, 160쪽.
- 15) 강계숙, 「해방기 ‘전위’의 초상 - 『전위시인집』의 특징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45,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7, 31쪽.

회 속 청년 담론의 전개 과정에 대한 이해가 도움이 된다.

한국 근대 사회에서의 ‘청년’은 과거와 결별하고 미래를 선취해야 하는 이상적 주체 모델의 일종이었다. 그 과거와 미래를 무엇으로 상정하느냐에 따라 ‘청년’이라는 용어의 구체적인 의미는 가변적이었지만 말이다.¹⁶⁾ 진정한 청년은 조선 사회를 근대적 진보로 이끄는 모범적 인물이어야 한다는 청년 담론이 1910년대에 형성된다.¹⁷⁾ 이와 같이 적극적 현실 참여를 강조하는 청년상은 1920년대 초반 사회주의와 만나 전위로서의 청년상을 형성한다.

1920년대 사회주의의 청년 담론 속에서, 역사의식과 계급의식을 통해 각성한 청년은 ‘대중의 전위대’, ‘무산계급의 전위’가 되어야 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청년의 특성은 순수하고 혁명적인 감수성, 그리고 폭발적인 행동력과 실천성이었다.¹⁸⁾ 이후 1920년대 말~1930년대 중반을 거치며 사회주의운동이 지하화되면서,¹⁹⁾ 투쟁적인 좌익 청년의 상은 담론상의 전면에서 잠시 퇴각한다. 이후 해방이 이루어지며 좌익 운동이 합법적으로 재개되고, 좌우의 양측이 민족국가의 수립이라는 명분을 선취하려 투쟁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이전 시기의 사회주의적 청년상이 재등장한다. 조선문학가동맹 진영의 신진 시인들을 소환한 『전위시인집』은 이러한 저간의 사정에서 출발한다.

이들이 청춘과 전위의 이름으로 무엇을 요구받았는가를 묻기 위해, 『전위시인집』 시편에 나타난 공통된 감정 구조를 먼저 살피고자 한다. 이 시집에 나타나는 일련의 감정 구조가 지극히 특징적이며, 따라서 그 공통점의 추출을 통해 ‘이들이 요구받은 것’의 단서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총 5명의 서로 다른 시인이 쓴 시편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시편에 나타나는 감정 구조는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을 보인다.

첫째, 이 시집 속에서 슬픔은 분노로 신속히 치환되거나, 과거를 떨쳐내기 위한 계기로 작동한다. 슬픔에 머무는 슬픔은 이 시집 속에서 재현되지 않는다.

「독립! 골수에겨려 꿈되어 알른거리드니만//마춤 닥쳐온 네가 싫다, 어름좋은 그림자였으나!//악착 하구나 빙설은 차곡이 싸이는데/누덕이웃에 한결같이 주리고 떨어/안죽음을 한(恨)하는 하라버지와/못 살아 발버둥치는 작은것들을/고대로 보고있어야 하느냐? 독립의 귀한선물로...../(.....)/조선아 물어 보자! 그대의 아들 팔할이 굶주리누나/(.....)/아아 농군은 사람이 아니라니 「조선」아 이래야 옳으나!//아아 토지를 농군에게 다고. 배꽃아서 일못하는 농군이 없게해다고...../이렇게 부르짖고싶다. 딱한백성들이 이렇게 부르지져야한다./그러나 그들은 양보다 순하기에 양복쟁이 두려워 고개숙이고/모도다 빼앗기고도 말할 주변이 없다

- 김상훈, 「전원애화(田園哀話)」 부분²⁰⁾

사랑할 땅도 없이/배고픈드날이 더욱 슬퍼/애오라지 울음에 지치든 왜놈의 옛날//.....//어데까지나 돈보다 나라를 사랑하는 나로써/그냥 이러한 잘못 이속에서 살아야하느냐//또다시 옛과같이 누구를 원망하느니보다/나도야 인제는 비굴을 버리고/지혜와 나라를 진실히 사랑하는 사람들과/새로운 우리의 내일을 도모하야/배를 쥐어잡고라도 앞으로 나아가려다

16) 소영현, 『부랑청년 전성시대』, 푸른역사, 2008, 41~42쪽.

17) 소영현, 『문학청년의 탄생』, 푸른역사, 2008, 162쪽.

18) 이기훈, 『청년아 청년아 우리 청년아』, 돌베개, 2014, 155~180쪽 참고.

19) 위의 책, 180~188·212~215쪽.

20) 김상훈, 「전원애화(田園哀話)」, 『전위시인집』, 17~20쪽.

- 김광현, 「기아선(飢餓線)에서」 부분²¹⁾

그저 멍하니 한숨지든 버릇이/상기도 가지지 않은 땅에/무슨놈의 비가 쏘다지는가//.....//휘모라
치는 비바람에/고향은있어도 흥한춤 없는/아— 이나라는 언제나 남의땅 같구나//.....//공손히 뭉쳐
나누어주는손/흰옷일망정 덮어주는 손들만이/비와 눈물에 젖은 마음을 어루만지는구나//보라 이비가
머즌 다음날엔/진정 폭풍우같은 우리의 아우성이/새로운 장마를 마련할것이다.

- 유진오, 「장마」 부분²²⁾

「전원애화」의 화자는 분노를 직설적으로 쏟아낸다. 독립 이후의 빈곤상에 화와 분노를 표출하며, '조선'을 향해 그와 같은 감정을 발산한다. 동시에 이 시는 인민들 모두가 함께 분노해야만 하는 이유를 제시한다.²³⁾ “딱한 백성”들은 “양보다 순하기에” 현재의 불합리한 상황 아래 침묵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순한 이, 슬퍼만 하는 이, 분노하지 않는 이, 그저 침묵하고 고개 숙이는 이는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없다. 슬퍼만 하고 침묵하는 이는 이 세상 속에서 ‘사람’조차 아닌 이로 취급받게 된다.

그렇기에 슬픔에 머무는 일은 이 시적 세계 속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배가 고파 ‘슬프고’ ‘울음에 지치던’ 「기아선에서」의 옛 세월은 끝나야 한다. 현재 역시 배를 쥐어 잡을 수밖에 없는 가난의 세월이지만, 가난의 슬픔은 슬픔으로 머물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원동력으로 치환되어야 한다. 「장마」에서도 사람들은 아직 ‘멍하니 한숨짓던 버릇’에 젖어 있다. 그리고 여전히 (실제 수해의 상황과 ‘눈물’이라는 슬픔의 비유를 겹쳐둔 시어인) ‘비바람’이 휘몰아쳐 ‘비와 눈물에 젖은 마음’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러나 시의 말미에 이르러, 슬픔에 울던 세월은 “폭풍우 같은 우리의 아우성” 즉 더 이상 슬픔에 침잠하거나 침묵하지 않는 변혁의 목소리로 전환될 것을 예비한다.

내 창백해 눈물과 친숙할 버릇을 버리고/함부로 내달아 부대치는/바람아 너의마음이 되지못하느냐//
아침저녁 까마득히 바라보는/붉은 기빨을 하늘높이 날려주는/구름 모라헤치고 태양이 여기있다고 일러
주는/새새끼때 날려 태산을 넘기고/불우한 겨레의 피눈은 함성을 전해주는/바람은 낡은역사책의 냄새
나는 페—지를 넘긴다.

- 김상훈, 「바람」 부분²⁴⁾

슬픔 그 자체는 아무것도 변혁할 수 없다고 이들의 시적 세계에서는 이해된다. 순종적인 슬픔은 지배-피지배의 구조를 공고히 하는 데에 복무할 뿐이라 여겨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슬픔은 슬픔에 머무르지 않고 청산되어야 한다. 「바람」의 시적 화자가 ‘바람’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바람’은 ‘구름을 몰아 헤치고’ 희망(‘태양’)을 확인하는, 희망을 향해 ‘함부로 내달아 부대치는’ 속성을 갖는다. 그것은 ‘눈물과 친숙한’ 비애의 특성과 대비를 이룬다. 역사

21) 김광현, 「기아선(飢餓線)에서」(1946.2.), 『전위시인집』, 8~9쪽.

22) 유진오, 「장마-수해구제문제강연회낭독시」(1946.6.25.), 『전위시인집』, 57~59쪽.

23) 강계숙의 논의는 『전위시인집』에 나타나는 분노의 정치성을 제시한 바 있다. 강계숙의 분석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되, 본 논의는 『전위시인집』에 나타나는 분노가 ‘슬픔에 주저앉아서 안된다’는 보다 심층적인 요청의 결과물이라고 하다고 이해한다. 강계숙, 「해방기 ‘전위’의 초상 - 『전위시인집』의 특징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45,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7, 48~53쪽 참고.

24) 김상훈, 「바람」, 『전위시인집』, 26~27쪽.

적 전진을 위해 슬픔은 버려져야 하는 것, 그대로 두어선 안되며 희망으로 전환되어야만 하는 것으로 시에서 이해된다.

둘째, 『전위시인집』 속에서 온전히 허용되는 유형의 슬픔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공적인 애도 유형의 슬픔이다. 동지의 죽음을 슬퍼하는 만가(輓歌)의 형태일 때만 『전위시인집』 속의 슬픔은 끝까지 온전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다.

요령이 울고, 흐느끼는 소북단장/삼청동, 잊지 못할 삼청동에서/모—든 사랑하는 사람에 안기여 너는
가느냐//피 눈물 쏟아놓으며 쫓겨나든 조국/눈물에 취해야 기꺼히 달려온 조국/너의 뼈에 사모친 너와
나의조국이 인제 운다

- 김광현, 「조국은 울고」 부분²⁵⁾

바람도 구름도 서름에 젖어/장열(葬列)은 자옥마다 눈물이 고이고/요령도 조기(吊旗)도 없어야 하기
에/서럽게 서럽게 밀려서 간다.//돌뿌리마다 낮은길을/참아 떠나지못해 짐짓 망서리건만/별이 그리워
외치며 죽은벗을/태양없는 나라로 보내야하니//(.....)//장열(葬列)은 고요히 흘러간다/꿈많은 서울도 아
득히 등지고/가면 도라오지 못하는길을/무엇이 불러 어디로 간다고.....

- 김상훈, 「장열(葬列)」 부분²⁶⁾

해련아/인제는 아모리불러도 대답없는 너의일흔을/울면서 딸아가면서 부르겠노라//다섯자(五尺)도 못
되는 작은키로 하늘을/바로 고으려든 네보람//도적의 손에 묻질려 꺾인 한그루의 넋을/울면서 딸아가
면서 부르겠노라

- 이병철, 「울면서 딸아가면서-동지 고 전해련(全海鍊) 영전에」 부분²⁷⁾

아무도 인제는 네 굳이 닫은 입술을/열지못하리라/어머니의 두볼을 적시든 뜨거운 눈물도/동무들의
목소리도/인제는 다시 열지못하리라/(.....)/아아 나타없이 돌아온 가난한 소년아/어두운 상여를 타고
가야만 하는/적막한 우리 국토의 오날을/너와나—비를 맞으며 장열(葬列)에 섰다

- 박산운, 「소년의 사(死)」 부분²⁸⁾

앞서 살핀 시편에서 슬픔은 나약한 것, 지배-피지배의 구조를 재생산하는 것, 따라서 억제되거나 교정되어야 할 것으로 간주되었다. 반면 위 만가 유형의 시편들에서 슬픔과 눈물은 검열되기보다 오히려 공유되고 표출되어야 할 것으로 『전위시인집』에서 제시된다. 슬픔을 발산하는 행위는 '이들이 왜 죽어야만 했는가' 하는 사회적 의문을 확산시키고, 이들을 죽음으로 내몬 사회 구조적 문제를 비판적으로 가시화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결국 집단적 분노를 조직하고, 분노하는 이들을 공통된 감정 아래 연대하게 하여, 사회적 변혁의 원동력을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사적 정서에 머무르지 않는, 공적인 감정으로 전환될 여지가 있는 슬픔은 『전위시인집』의 젊은 시인들에게 허용된다. 사회적 운동 및 혁명을 저지하지 않고 그것을 더욱 촉발할 수 있는 한 슬픔은 허용된다.

25) 김광현, 「조국은 울고」(1946.1.30.), 『전위시인집』, 6쪽.

26) 김상훈, 「장열(葬列)」(1946.1.30.), 『전위시인집』, 22~23쪽.

27) 이병철, 「울면서 딸아가면서-동지 고 전해련(全海鍊) 영전에」, 『전위시인집』, 35~36쪽.

28) 박산운, 「소년의 사(死)」(1946.8.4.), 『전위시인집』, 48~49쪽.

셋째, 혁명의 동력으로 치환되지 않는 슬픔만큼이나, 내적인 망설임과 균열 역시 『전위시인집』의 시인들에게 허용되지 않는다. 사실 아래 한 편의 시에서는 그러한 망설임과 균열이 아주 미세하게 노출되기도 한다. 그러나 인용문을 통해 알 수 있듯, 이러한 망설임은 서둘러 봉합되며 균열은 신속히 제거된다.

웃을때마다 보조개우물지는 안해를 코스구멍이 빠꼼빠꼼한 어린것들을/낙동강건너마을에 버리고 쫓겨왔다.//하도 바람부는날이기에 자락을 거슬러 젊음을 버리면서/몇몇동무들은 시장한 회관에서 나를 기다릴텐데.//((.....))//힌손이 좀 부끄러웠음인가 내가 내등뒤에 숨으려는 나를, 헐벗은틈에서 새삼보았나라, 어서 굶다란 첫책을 그를 붓과 잉크를 사가지고 건너가자.

- 이병철, 「거리에서」 부분²⁹⁾

위 시의 화자는 가족과 떨어져 쫓겨 다니는 신세이다. 문맥으로 짐작하건대 그 연유는 ‘동무들’과 함께 하는 투쟁의 전선에 복무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 자신이 처한 현실은 슬픔이나 두려움의 감정을 충분히 불러일으킬 만하다. 그러나 “내등뒤에 숨으려는 나”를, “헐벗은” 마음의 틈에서 보이는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화자는 부끄러운 마음으로 서둘러 지워낸다. 슬픔과 미련이 자리하는 ‘낙동강 건너 마을’의 지대를 벗어나 ‘동무들’이 기다리는 ‘회관’으로 건너가자는, “어서 굶다란 첫 책을 그를 붓과 잉크를 사가지고 건너가자”는 다짐이 연약한 마음의 ‘틈’을 서둘러 덮는다. 연약함은 더이상 돌보아지지 않는다. 투쟁의 다짐이 내적인 망설임과 균열을 덮어내고 지운다.

망설임과 연약함이 이념의 이름 아래 서둘러 봉합되는 문제 이외에도 주목할 점은 남는다. 『전위시인집』 내부의 시편 중, 이와 같은 망설임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는 사례는 사실상 이 한 편이 전부라는 점이 그것이다. 오장환이나 이용악과 같은 기성 시인들에게서는 [망설임-고백-망설임의 청산-혁명에의 투신]이라는 시적 문법이 빈번히 관찰되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³⁰⁾ 『전위시인집』에서 신진 시인들이 선배 시인들의 어법을 거의 계승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주목을 요한다. 망설임이 **있지만** 이 망설임조차 공적 발화로 고백함으로써, 망설임을 떨치고 현실 투신의 길로 나아간다는 식의 서사는 『전위시인집』 속 신진 시인들의 시편에서 드물다. 『전위시인집』 시편의 주체들은 처음부터 오롯이 인민의 힘을 믿기 때문이며, 결과 선배 시인들과 달리 애초 망설임에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다.

웅변은 못하나마/그들은 항상 진실을 말한다./가난한 사람들을/맥여 살리려는 그들은/몸소 영양부족에 걸려있다.//((.....))//인민을 위해서는/언제나 충실한 개아미처럼/죽어도 돌볼 겨를없이/일하기를 좋아한다.//적을 중상(中傷)하고 욕하기 보담은/오히려 자기를 비판하는/새빨간 피가 그들의 온혈관을 구비쳐 날래다.//((.....))//전취(戰取)하라 우리들의정열의투사!/대중(大衆) 또한 따라 웃는다.

- 유진오, 「공청원」 부분³¹⁾

29) 이병철, 「거리에서」(1946.9.), 『전위시인집』, 37~38쪽.

30) 오장환의 「공청으로 가는 길」, 이용악의 「노한 눈들」 등의 시편은 나약한 시적 주체의 내면을 잠시 간 드러냈다가 현실 투신의 이름 아래 그것을 봉합하는 문법을 반복한다. 이들의 시적 문법은 자신의 내면까지도 낱알이 고백하고 비판해야 한다는 당대 자기비판 담론의 요청과 연관되어 있다. 오장환, 「공청으로 가는 길」(1946.1.7.), 『병든 서울』, 정음사, 1946, 43~44쪽; 이용악, 「노한 눈들」(1946), 『이용악집』, 동지사, 1949, 22~25쪽(『서울신문』, 1946.11.3.).

조금씩 서로 닮은/비슷 비슷한 얼굴들//모두다/해바래기 처럼 싱싱한 포기 포기//((.....))//앞을 딸어
/목소리를 가즈런히 만세를 부르면서//((.....))//앞을딸어/목소리를 가즈런히 만세를 부르면서/우리 모
두다 함께간다.

- 이병철, 「대열(隊列)」 부분³²⁾

유진오의 시편에서 승하는 것은 ‘공청원이라면 모름지기 진실을 말한다’는 논리가 아니다. 「공청원」에서 승하는 것은 ‘공청원이기에 그들이 말하는 것은 항상 진실이다’와 같은 믿음의 논리이다. 시 속에서 그들의 진실됨을 증명하는 것은 몸으로 증명되는(‘몸소 영양부족에 걸려있’)는 그들의 희생정신과, ‘죽음도 돌볼 겨를없이’ 오로지 인민을 위해 일하는 용감·근면의 특성이다. “정열의 투사”로서 열정과 투쟁정신을 모두 갖춘 이들이기에 ‘공청원’들은 아낌없는 찬사의 대상이 된다. 심지어 끊임없는 자기비판을 감행하는 모습까지 갖춤으로써(“적을 중상하고 욕하기보담은/오히려 자기를 비판하는”), 공산주의 청년동맹원들은 절대적인 선으로 시에서 그려진다.³³⁾

이와 같이 신념에 대한 망설임을 봉쇄하는 논리 속에서는, 투쟁의 대열에 참여하는 행위 자체가 이념화되기도 한다. 이병철의 「대열」에 나타나듯, 선하기에 대열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대열을 따르는 이들은 모두 선하다. 혁명의 대열 속에 선 이들에게서는 내적 균열이나 망설임도, 따라서 이기성의 지적대로 고유성도³⁴⁾ 모두 제거된다.³⁵⁾ 모두가 동일한 이념을 믿고 그에 대한 어떠한 의문이나 회의도 제기하지 않는 시적 세계 속에, 어느 한편에 서지 못하고 망설이거나 방황하는 “여린 마음”의³⁶⁾ 자리는 없다. 망설임을 배격하고 절대선을 신뢰함으로써 신진 시인들은 ‘전위’가 된다.

그리고 『전위시인집』의 말미에 배치된 유진오의 시는, 지금까지 『전위시인집』에서 제시된 감정 구조와 전위의 미덕을 ‘청춘’의 이름 아래 수렴시킨다. ‘씩씩하고’ ‘무서운’ “젊음의 힘”으로, “단한길”만을 향하는 청년의 모습이 이 시편의 전면에서 형상화된다.

눈시울이 뜨거워 지도록/두팔에 힘을 주어 버티는것은/누구를 위한 붉은 마음이나?//깨어진 꿈조각
을/떨리는 손으로 주어모아/역사가 마련하는 이 국토우에/옛날을 찾으려는/저승길이 가까운 영감님들
이/주책없이 중얼거리는 잠고대를/받아드리자는 우리의 젊음이나?//((.....))//누구를 위한/떡차는 우리의
젊음이나?/어느놈이 우리의/분통을 터트리느냐?/우리들 젊음의 힘은/피보다도 무서웁다//머ल्ली 바다
건너 저쪽에서도/피끝는 젊은이의/씩씩한 행진과 부르짖음이/가슴과 가슴들속에 파도처럼 울려온다//

31) 유진오, 「공청원(共靑員)」(1946.3.8.), 『전위시인집』, 54~56쪽.

32) 이병철, 「대열(隊列)」(1946.6.), 『전위시인집』, 33~34쪽.

33) 이기성이 푸코의 논의를 빌려 지적하듯, 해방기의 고백 담론은 일차적으로 고백 주체 자신의 윤리적 선점을 욕망하는 담론이었다. 자기비판의 행위가 오히려 윤리적 무결성의 방증으로 성립하는 셈인데, 유진오의 「공청원」에서 볼 수 있듯 이와 같은 전술은 비단 기성 시인들에게만 가능한 전술은 아니었다. 자기비판을 하는(할 줄 아는) 존재로 ‘공청원’들을 정의함으로써 ‘공청원’들은 절대적인 선, 무결한 존재로 시에서 처리된다. 이기성, 「해방기 시에 나타난 가족주의와 국가주의-‘자기비판’ 문제를 중심으로」, 『상허학보』 26, 상허학회, 2009, 158~160쪽 참고.

34) 이기성, 「해방기 시에 나타난 가족주의와 국가주의-‘자기비판’ 문제를 중심으로」, 『상허학보』 26, 상허학회, 2009, 180쪽.

35) 내적 균열이나 망설임은 고유성의 표지이다. 균열 없이 매끈한 상태로 환원되지 않음으로써 개별 존재들은 내면의 자리를, 그리하여 고유의 개체성을 획득한다.

36) 김용직, 앞의 글, 31쪽.

젊음이 같길은 단 한길이다/가난한 동족이 우는곳에//피뺀아서 날뛰는/외국×××들과/망령한 영감님
들에게/저승길로 떠나는 노자(路資)를 주어/××으로 쫓아야 한다

- 유진오, 「누구를 위한 벽차는 우리의 젊음이나? -국제청년데-에」 부분³⁷⁾

이 시는 『전위시인집』 전반에 걸쳐 형성된 감정 구조를 가장 집약적으로 드러낸다. ‘뜨거운’ 열정, ‘버티는’ 끈기, 불의에 대한 사나운 분노, 적을 두려워하지 않고 들이 받아버리는 직설적인 공격성, 그와 같이 ‘혁명’에 기여하는 감정들은 모두 ‘젊음’의 이름으로 이 시에서 수렴된다. 슬퍼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는 만큼 적에 대한 언어적인 공격은 가열해진다. 불의를 무찌르는데 “벽차는 우리의 젊음”을 사용하자는 **청춘의 발화**는, 혁명에 기여해야 할 청춘(젊음)의 당위를 내세우고 분노의 감정을 극한까지 끌어올림으로써, **혁명적 전위의 발화**로 확장된다.

유진오의 시는 『전위시인집』이라는 시집을 통어하는 일련의 감정 구조를 가장 효과적으로 압축해내는 동시에, 그와 같은 감정의 구조를 ‘젊음’의 것으로 다시 호명한다. 위와 같은 감정의 구조를 내면화한 ‘젊음’ 신진 시인들이 곧 시대의 ‘전위’가 될 수 있었음을 유진오의 시는 보여준다.³⁸⁾ 이상의 분석을 통해 해방기 좌익 문단이 기획한 『전위시인집』이 어떠한 감정의 규율과 기획 아래 구성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다음 장에서 살피고자 하는바 이것은, 신진 시인들 자신의 의도이기 이전에, 『전위시인집』을 기획한 기성 시인들의 의도이기도 했다.

3. 투쟁성의 표상으로서의 ‘전위’와 ‘청춘’: 『전위시인집』의 기획 의도

서로 다른 시인들이 쓴 시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작품에서 유사한 감정 구조가 반복적으로 발견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단서는 이 다섯 시인의 시편들이 『전위시인집』이라는 동일한 앤솔로지의 기획에 제출되었다는 사실에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앤솔로지의 기획에는 제출자들의 의도뿐 아니라 이들을 선별·호명한 기획자의 의도 역시 반영된다. 따라서 이들 다섯 시인을 ‘전위시인’의 이름으로 묶었던 선배 시인들의 의도를 읽어보는 일은 유의미하다. ‘이런 시편들을 엮게 한 의식 또는 명분이 이것이었다’라는 사실로부터 역산하여, ‘이러한 의도가 있었기에 이런 시편들을 이러한 명분으로 엮어내기를 원했다’를 추론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8·15 이전부터 진정한 시인이었고 또 이후에도 시인일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남조선에 있어서 새로이 대두하고 있는 반동과 그것의 열성스러운 사육자(飼育者)에 대하여 태연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우리 민족은 팔·일오 이전과 가치 싸워야 하고 그 싸움은 일층 더 치열히 연장되고 있는 현실의 새로운 분류 가운데서 자기가 일즉이 시인이었는가 아닌가 또는 자기가 아즉도 시인인가 아닌가를 묻지 아니하면 안될 관두(關頭)에 서게 된 것이다. 조국의 자유와 민족의 행복을 좌우하는 역사적 운명과 달리 시는 존립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시가 해결하지 아니하면 아니될 이 과제와 더불어 피와 고기의

37) 유진오, 「누구를 위한 벽차는 우리의 젊음이나? -국제청년데-에」(1946.9.1.), 『전위시인집』, 66~70쪽.

38) 유진오가 좌익 문단에서 ‘전위’의 위치를 더욱 공고하게 차지하게 되는 데에, 이 시를 둘러싼 필화 사건이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필화 사건 이전에도 이 시는 그 자체로, 선배 시인들이 요구했던 신진 시인의 덕목을 가장 충실히 구현한 시편이었다. 여기에 해방 최초의 필화 사건이라는 상징성까지가 덧대어져, 이 시는 유진오로 하여금 임화의 상찬을 받게 하며 ‘인민의 계관시인’의 칭호를 부여받게 한다.

싸움 가운데서 자라나는 새로운 시의 정신은 우리 시의 재건의 확실한 기원이 될 것이다. (.....) 일찍이도 그러했던 것과 같이 새로운 시는 침략자와 반동에 대한 타협없는 싸움과 조국의 자유와 인민의 행복에 대한 뜨거운 애정 가운데서 발전하는 것이다.

- 임화, 「서(序)」 부분³⁹⁾

생각하면 그것은 일순의 회고조차 휴식조차도 허락지않는 긴박한 일년이었다. 말할수없이 찬란한 무지개가 갑자기 우리들길앞에 피었을적에 이윽고는 한없는 고난의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도시 황홀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우리는 그토록 모두가 너무나 젊었던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모도 후회하지는 않는다. 더군다나 첩첩한 고난에 싸여있기는 하였을망정 비길데없이 큰희망에 차있는 길인이상 모두가 잘견디어 갈줄도 알았다.

이러한것이 말하자면 오늘 이나라에 자라가고 있는 새로운 젊은 세대의 감정이요 표정이요 결의요 생리가 아닌가 한다. (.....) 한 개인의 시의 운명보다도 먼저 민족의 운명이 압도적으로 시인들의 생각을 휩쓸고 있었던 것이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이러한 격동의 시대에 냉정을 잃지 않기에는 그들의 생리는 너무나 많은 피의 양에 지배되었던 것이다.

- 김기림, 「서(序)」 부분⁴⁰⁾

기성 시인들이 청춘기의 후배 시인들을 호명하는 방식, 그리고 이들에게 요청하는 내용은 주목할 만하다. 임화에 따르면 신세대의 시인들은 시인이 되기 이전에 먼저 투사가 되어야 한다. 시는 “조국의 자유와 민족의 행복을 좌우하는 역사적 운명”에 선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평화 속이 아니라 “피와 고기의 싸움 가운데서”, “타협없는 싸움” 속에서 투쟁하는 투사가 될 것을 임화는 젊은 시인들에게 요청한다. 이와 같은 타협 없는 투쟁심은 특정한 감정이 전제될 때에만 가능한 것이었다. 그 감정은 조국과 인민에 대한 “뜨거운 애정”이었다.

그리고 김기림의 서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새로운 시의 정신과 현실에의 ‘뜨거운 애정’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신진 시인들의 ‘젊음’이다. 김기림의 글에서도 “새로운 젊은 세대”의 시인들은 냉정이 아닌 열정에 지배된 존재이다. 이들은 고난의 현실을 냉철하게 진단하지도, 절망의 앞에서 냉정하게 멈추지도 않는다. 대신 열정을 동력으로 하며, 고난의 현실에서도 ‘황홀함’과 희망을 보며 앞으로 나아간다. 열정, 희망참, 그리하여 절망하지 않고 전진함, 이 모든 속성을 좌익 문단의 기성 시인들은 ‘청춘’의 표상으로 구성한다.

청년 담론은 근본적으로 ‘-해야 한다’, ‘-할 것이다’와 같은 당위적 명령 속에 청년의 미래를 규정하는 수사적 특성을 보이는데,⁴¹⁾ 이들 기성 시인의 ‘청년은 이러한 존재이다’라는 규정은 ‘청춘은 이러한 존재여야 한다’라는 당위적 명령과 구분되거나 분리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속성들이 ‘청춘’의 이름 아래 수합될 때, 청춘은 ‘그러한 것’을 넘어 ‘그러해야 하는 것’으로 자연스레 정의된다. 나아가 아래 오장환의 발문에서 굳건한 투지와 불같은 열정은, ‘청춘’의 특성인 동시에 ‘전위’의 특성이기도 한 것으로 처리된다. 진정한 ‘젊음과 보람’을 다하여 ‘인민의 요구’를 다하는 청년 시인들(만)이 진정한 청춘이자 전위로 일컬어질 자격을 획득한다. ‘청춘’과 ‘전위’의 이름 아래 기성 시인들이 신진 시인들에게 요구한 감정의 정체를, 아래 오장환의 발문은 선명히 보여준

39) 임화, 「서(序)」, 『전위시인집』, 2~3쪽.

40) 김기림, 「서(序)」, 『전위시인집』, 4~5쪽.

41) 소영현, 『문학 청년의 탄생』, 푸른역사, 2008, 50쪽.

다.

여기 다만 가쁘게 숨소리만 나는 이 땅이 다 함께 같은 호흡을 하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치밀한 계획이 있어 보이고 물러서지 않는 투지가 숨어 보이고 모든 것은 측정되어 오직 목적하는 곳으로 매진하려는 기관차와 같이 무표정하고 우람한 시인들이 있다. 그들은 청년들이다. 만 사람이 청춘이라야만 가질 수 있는 용기와 자유에의 부절(不絶)한 회구를 이들은 몸과 마음 모든 조건으로 구비하고 있다. (.....) 전위란 연치나 경력을 운위함이 아닌 줄도 이들은 잘 안다. 그리고 어떠한 전투에 있어서나 전위가 저야 될 임무와 그 역할을 이들은 그들 청년기에 있어서의 고난의 매가 능히 선배들보다도 많은 단련을 주었다. (.....) 우리의 전도다망한 시단이며! 이들 전위 시인들로 하여금 끝없는 영광을 차지하도록 원조를 아끼지 말자. 그리고 수많은 이 땅의 젊은이여! 그대들은 그대들이 가지고 있는 젊음으로 하여금 서로 합치는 힘이 불과 같으라. (.....) 너희들의 영광 그것은 우리의 영광이요 삼천만 인민의 요구 그것은 오직 젊음과 보람만이 머릿속에 가득 찬 너희들의 요구이기도 하다.

- 오장환, 「발」 부분 (『전위시인집』)⁴²⁾

열정적이고 전투적인 삶을 진정한 ‘청춘’으로 일컫는, 그리고 그와 같은 ‘청춘’의 표상을 계급 투쟁의 ‘전위’로 일컫는 논법은, 『전위시인집』의 말미에 수록된 오장환의 발문을 통해 완성된다. 이 글에서 ‘청춘’과 ‘전위’는 사실상 등치된다. “청년들”은 “치밀한 계획”, “물러서지 않는 투지”, “오직 목적하는 곳으로 매진하려는” 방향성과 열정, “용기”와 “자유에의 부절한 회구”를 가진 존재로 그려진다. ‘표정’으로 표현되는 복잡한 감정은 “무표정하고 우람한” 외면 아래 지워진 채, 다만 “젊음과 보람만이 머릿속에 가득 찬” 모습으로 청춘은 재현된다. 이러한 속성의 청춘들이 연대하고 협력할 때 ‘젊음’은 ‘불과 같은’ 변혁의 원동력이 된다. 청춘이기에 그는 전위가 될 존재로 간주되며, 전위일 때 그는 ‘진정한’ 청춘으로 승인된다.

결국 『전위시인집』의 기획을 통해 기성 시인들이 신진 시인들에게 요청한 내용은 명확하다. 뜨거운 열정을 갖고 전투적으로 투쟁함으로써, 진정한 ‘청춘’이자 시대의 ‘전위’가 되라는 요청이 그것이다. 충알을 두려워 말고 “한가지 노래를 조직”하여 “꿀범벅 피범벅”의 청춘을 살아가자는 설정식의 시,⁴³⁾ “다만 앞을 향하여” 뉘우침 없이 나아가는 “노한 청춘”의 모습을 그리는 이용악의 시,⁴⁴⁾ “죽음도/오히려 황홀한 영광”으로 알고 “또 한번 죽어도 오히려 기꺼운” “청년의” 행진을 해나가자는 임화의 시는,⁴⁵⁾ 기성 시인들이 ‘청춘’의 이름에 요구했던 감정과 ‘전위’로서의 미덕을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앞서 2장에서 살핀 『전위시인집』의 시편들 속 감정 구조는, 상당 부분 이러한 기성 시인들의 요구를 소화하려 노력한 흔적을 보인다. 이들의 시편은 슬픔을 경계하고, 혁명의 원동력이 되는 감정만을 남기며, 열정적이고 진취적인 청춘으로서 자신의 전위된 사명을 다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혁명적 실천에 적합하다고 여겨진 일련의 감정 구조는 당대 좌익 문단의 맥락에서 분명히 존재했다. 설정식의 「임우(霖雨)」를 예시로 들어, 설정식의 시가 문맹의 요구와 맞지 않았던 이유를 추론했던 김용직의 논의를 상기해보라. 동무와 동무의 어머니가 테러로 목숨을 잃었음에도, 그들

42) 오장환, 「발(跋)」(1946.10.8.), 『전위시인집』, 71~73쪽.

43) 설정식, 「붉은 아가워 열매를」, 『제신의 분노』, 신학사, 1948, 47~58쪽. (『조광』, 1946.8.)

44) 이용악, 「거리에서」, 『이용악집』, 동지사, 1949, 49~51쪽. (『신천지』, 1946.12.)

45) 임화, 「청년의 6월 10일로 가자」(1946.6.9.), 『찬가』, 백양당, 1947, 59~61쪽.

을 생각하는 시적 화자는 “아 생강이라도 있으면/폭 달여 마시고/독한 엽초(葉草)나 피우고 싶은 밤이다”라는 감상으로 시를 마무리한다.⁴⁶⁾ 문맹이 요구한 문학의 투쟁성에 비추어 보면, 친구와 친구의 어머니가 그렇게 된 데에 대한 적개심이 시에 드러나야 하며 이것은 대중적 투쟁의 힘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러나 설정식의 작품은 그러지 않았다. 이것이 설정식이 문맹에 의해 외곽화된 이유였다고 김용직은 설명한다.⁴⁷⁾ 이와 같은 분석은, 문맹 측에서 요구하는 특정한 감정의 구조가 있었다는 논의의 설득력을 보강한다. 혁명의 이념이 주체에게 요구하는 특정한 감정의 구조가 있었다는 사실은, 해방기 조선 문단의 지역적 사례를 넘어 세계사적인 차원에서 확인된다.

우울하다는 말이 나와서 말인데, 너희는 대포의 발사구로 행진할 줄도 몰라. 아니, ‘행진하지 않는 다’라는 표현이 딱 맞지. 행진은커녕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겨우 기어가고 있을 뿐이야! 이는 운동의 정도가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아예 종류가 다르다고 할 수 있어.

전체적으로 볼 때 너희들은 나오는 완전히 생물학적으로 종류가 다른 불평 많고, 까다로우며 겁 많고 열의 없는 존재들일 뿐이며, 나는 지금처럼 그런 너희들이 낫설고 증오스러운 적이 없었어. 나로 말하자면 전에도 물러터지지 않았지만 지금처럼 확실하고 강인하게 단련된 적은 없었어. 그리고 난 앞으로 정치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절대로 어떤 타협도 하지 않을 생각이야.

새해 인사로 이 정도면 괜찮겠지? 그렇다면 앞으로도 인간답게 살자! 다시 말해 강인하고 명료하며 활발한 인간으로 살아가라는 의미야. 그래,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활기차게 살아야 해. 징징거리는 건 약한 자들이나 하는 것이니까!⁴⁸⁾

논조가 극단적이기는 하나, 로자 룩셈부르크가 1916년 12월 28일에 베를린의 감옥에서 친구에게 썼다는 위의 편지는, 혁명의 이름 아래 개별 주체에게 요청되는 특정한 감정의 구조가 있었음을 하나의 사례로서 보여준다.⁴⁹⁾ 위 인용문에서 ‘우울하다’는 ‘물러터짐’, ‘행동하지 않음’, ‘겁 많음’, ‘열의 없음’이라는 특성과 등치된다. ‘강인하게 단련된’, 타협을 모르는 “강인하고 명료하며 활발한 인간”에게, 우울한 존재는 ‘인간 이하의’ “낫설고 증오스러운” 존재로 처리된다. 우울함과 자기연민은 세계를 변혁하려는 동지들의 에너지를 감소시키기에, 부르주아 혁명의 흐름에서 금기시되는 감정이었다.⁵⁰⁾ 혁명의 이름 아래 감정의 구조는, ‘느껴도 되는’ 감정의 종류는 제약된다.

일찍이 『소년』지의 시절부터 청년 담론은 국가 건설을 위해 개인의 내면을 규율하는 논리 속에서 구성되었다.⁵¹⁾ 이상의 사정을 감안한다면, 『전위시인집』의 시인들이 ‘전위’와 ‘청춘’의 이름으로 호명되는 과정에서 선취해야 했던 덕목과 지위내야 했던 감정이 무엇이었던지를 더욱 선명

46) 설정식, 「임우(霖雨)」(1947), 『포도』, 백양당, 1948, 54~56쪽.

47) 김용직, 『해방 직후 한국시와 시단의 형성 전개사』, 푸른사상, 2009, 281~287쪽.

48) Rosa Luxemburg, Brief an Freunde, herausgegeben von Benedikt Kautsky, Köln, 1976, s. 44~46; 페터 슬로터다이크, 이덕임 역, 『분노는 어떻게 세상을 지배했는가』, 이야기가있는집, 2017, 218~219쪽에서 재인용.

49) 이 인용은 마르크시즘 전체의 감수성을 일반화하려는 목적과는 무관하다. 다만 혁명적 실천이 강조되는 국면에서, 특정한 유형의 감정 규율이 반복적으로 등장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인용되었다.

50) 페터 슬로터다이크, 이덕임 역, 『분노는 어떻게 세상을 지배했는가』, 이야기가있는집, 2017, 219쪽.

51) 소영현, 「청년과 근대-『소년』을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연구』 6-1, 한국근대문학회, 2005, 64쪽.

히 확인할 수 있다. 분노가 혁명의 힘을 응집시키는 ‘혁명적인’ 감정으로 담론 속에서 간주되었던 반면, (전환되지 않은) 슬픔은 혁명의 힘을 분산시키는 ‘반동적인’ 감정으로 당대 좌익 문단의 담론장에서 간주되었다. 다른 무엇으로 전환되지 않는 슬픔은 현재 자신의 상황에 대한 회의를, 그리하여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혁명적 과제의 중요성에 대한 의심과 회의까지를 불러오기도 하기 때문이다. 슬픔과 회의와 의심은 혁명의 과업에 균열을 일으키는 감정이었다. 따라서 ‘전위’와 ‘청춘’의 이름은 그것을 제거할 것을 신진 시인들에게 요청했다.

이기성이 지적하였듯 『전위시인집』의 고백적 언어는 자아의 균열된 내면을 파고드는 대신 결의에 찬 다짐 속으로 스며 들어갔다. 그 순간 이들 전위시인들은 개개인이 아니라 ‘좌익 신진 전위시인’의 이름으로 가지런히 정돈될 수밖에 없었다.⁵²⁾ 그러한 정렬을 수행한 것은 그들을 전위로 호명했던 기성시인들의 욕망이었던 동시에, 주관적인 것·개인적인 것을 비판하고⁵³⁾ 진보적인 분노의 세계에 대한 확신을 가진 이만을 구성원으로 승인했던⁵⁴⁾ 해방기 좌익 이념의 감수성이기도 했다. 집단적 실천을 조직해야 했던 역사적 조건 속에서, 감정이 하나의 자원으로 재편되었던 양상을 『전위시인집』의 사례는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 규율의 요청이 존재했다는 사실이, 그것이 실제로 완전히 내면화되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를 보여주는 장면을 다음 장에서 살펴볼 것이다.

4. 전위가 되지 못한 청춘: 『전위시인집』의 바깥

『전위시인집』의 시인들이 요구받은 것은 혁명에 합당한 형태로 내면의 감정 구조를 재편하는 일이었다. 조선문학가동맹의 선배 시인들은 그것을 ‘청춘’과 ‘청년’의 이름 아래 요청했다. 전위시인으로 일컬어진 해방기의 신진 시인들은 자신들에게 요구되는 감정의 구조가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래 인용문은 그 사실을 보여준다.

낡은 장옷은 벗어 던지려고 했다. 그러나 쉽사리 던져지지 않았다. 너무나 몸에 뼈에 깊이 배어 있었다. 그래 아예 낡은 사념과, 쑥스런 즐거움을 깎아서 파묻어버렸다. 나는 젊은 놈이다. 옛날꿈이야 물어 버려도 슬프진 않다. 미련도 아까움도 없다. 다만 부끄러움이 있을 뿐이다. 부끄러움을 씻는 길은 앞으로의 나의 행동에서 나타날 것이다. 나도 어렸을 때엔 전형적인 소시민이었다. 감상적인 소년이었다.

그러나 시방은 다르다. 시인이 되기는 바쁘지 않다. 먼저 철저한 민주주의자가 되어야겠다. 시는 그 다음에 써도 충분하다. 시인은 누구보다도 먼저 진정한 민중의 소리를 전하는 사람이어야 할 것이다. 투철한 민주주의자가 된다는 것은 “인민을 위한 전사”가 되는 것이다. 나의 시다운 시는 금후의 과제이다.

나는 젊다. 나는 노력할 것이다.

— 유진오, 「발(跋)」 부분⁵⁵⁾

52) 이기성, 「해방기 시에 나타난 가족주의와 국가주의-‘자기비판’ 문제를 중심으로」, 『상허학보』 26, 상허학회, 2009, 179~180쪽.

53) 레이먼드 윌리엄스, 박만준 역, 『마르크스주의와 문학』, 지식을만드는지식, 2013, 262쪽.

54) 페터 슬로티다이크, 이덕임 역, 『분노는 어떻게 세상을 지배했는가』, 이야기가있는집, 2017, 250쪽.

55) 유진오, 「발(跋)」(1947.12.15.), 『창』, 정음사, 1948, 93~94쪽.

그들은 나같은 소시민에 비하면 굳센 품이 소와도 같았다. 그들은 얼마든지 무거운 짐을 지고도 꾸준히 걸어가는 소다. 아무리 무거운 짐진 조선 독립이든지 토지혁명이든지 경제건설의 큰 과업을 지위 주드래도 묵묵히 지고 나갈 우리들의 ○○부대인 것이다. 어서 이 문제되지 않는 어머니의 뼈뿌러진 자정(慈情)과 기대를 몇 시간씩이나 마음속에 논란하고 있는 이런 창백한 습성을 불살러버리자, 불살러 버리자! 하고 혼자 입술을 깨물어왔다.

- 김상훈, 「운동장에서」, 『현대일보』, 1946.7.29.

과거에 긴박된 선배 시인들에게, 참회할 과거를 지니지 않은 젊은 시인들이 미래의 가능성으로 이해된 것은 사실로 보인다.⁵⁶⁾ 그럼에도 그와 같은 기성 시인들의 생각과는 달리, 신진 시인들 역시 또 다른 의미에서 자신의 ‘버려야 할’ 과거를 의식하고 있었다. 유진오에게 있어서 버려야 할 것은 ‘감상성’과 ‘소시민성’에 물든 습성이었다. 그리고 “감상적인 소년”이었던 스스로를 “인민을 위한 전사”로 거듭나게 하는 변혁의 원동력은, “나는 젊다”라는 청춘의 인식에 있었다. 젊기에 감상성과 소시민성을 벗어나 노력할 수 있으며, 젊기에 투사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그는 생각했다.

김상훈의 글에서도 유사한 ‘청춘’의 감정 규범이 확인된다. 이 글에서 ‘굳센’은 ‘소시민성’의 대척점에 놓인다. ‘큰 과업’을 위해서 ‘창백한 습성’은 모두 ‘불살라져야’ 한다. 사사로운 정이나 마음속의 갈등을 모두 불사르고 오직 굳세게 앞으로 나아가야만 비로소 ‘소시민’성을 버린 굳센 전위가 될 수 있다. 위 인용문에서 ‘전위-청춘 되기’ 과업의 성공적인 수행 여부는 결국 사사롭고 ‘창백한’ 감정들을 얼마나 잘 폐기하느냐에 달려 있다. 감정의 적절한 통제 및 처리가 혁명의 완수에 직결된다는 혁명의 논리가, 신진 시인들에게 상당 정도 내면화되어 있음을 위 인용문은 시사한다.

그럼에도 주목할 점은, 정작 『전위시인집』의 바깥에 놓인 이들 다섯 시인의 작품에서는, 『전위시인집』에 기대되었던 것만큼의 혁명적인 감정 구조를 발견해내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예컨대 유진오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전위시인집』 바깥 유진오의 시편들이 다소간 감상적이었다거나, 유진오라는 인물이 「누구를 위한 벼차는 우리의 젊음이냐?」라는 시만큼 그리 굳센 인물이 아니었다는 점을 밝혀낸다.⁵⁷⁾ 이에 본 4장은 이 불일치의 장면, 『전위시인집』에서 요구되었던 감정의 구조와 여타 시편들의 실제 시적 감정이 어긋나는 불일치의 장면을 검토한다. 『전위시인집』을 벗어난 다섯 시인의 시편에서는 혁명의 동력으로 전환되지 못한 감정의 잔여, 예컨대 감상(感傷)이나 비탄과 같은 감정이 지속적으로 발견된다.

굳이 막은 쇠사슬을 정적이 호수처럼 넘어들면/내 무슨 외인부대의 파수꾼인양/목총과 걸맞지 않은
군화 땀시로/벗들의 잠자리를 지켜 달을 바라고 서다//.....//슬프다 빛나고 아름다워야 할 나이에/이
처럼 패리한 몸 무력한 마음이어!/일직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인종(忍從)의 철학이/단념에 익어 무엔지
탄식을 일삼다가/거연히 향간의 윤리에 포박되어/울어도 값이 없고 사랑해도 구석진 곳에서/내 비탄의

56) 이기성, 「해방기 시에 나타난 가족주의와 국가주의-‘자기비판’ 문제를 중심으로」, 『상허학보』 26, 상허학회, 2009, 164쪽.

57) 김효신, 「실종 시인 유진오(兪鎭五)의 시세계 소고」, 『한국전통문화연구』 13, 대구가톨릭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9, 77~98쪽; 정영진, 「육탄시인 유진오의 비극」, 『통한의 실종 문인』, 문이당, 1989, 49~106쪽.

시만을 써야 하나뇨!//(.....)//어인 야속한 거래의 운명이/배움의 문에 버림받아 뜻 아니 총을 메고/더러는 해풍 거센 이곳에 보람을 과문는고!/호탄(浩歎)하고 격분하여 시간을 잃고 저립(佇立)하면/어느듯 달이 거울 되어 나의 심장을 빛이고/내 거울 속에서 이십육세 궁곤한 발자국을 바라다

- 김상훈, 「서천월」 부분⁵⁸⁾

벗에게도 알릴 수 없는 이사날에는/커다란 짐이 되어 나를 괴롭힌 이불은/나의 지난 리력을 날날이 알고있다/어머니가 나를 잘 알고있듯이//어머니 손수 실을 낚아/밤을 도아 꾸며준 실한 솜이불/처음 보는 낯선 도회지에선/고리짝 밑바닥에 움츠리고있었다/나는 조심조심 꺼내 몸에 덮었다//산설고 물선 이역땅에 혼자 갈 때도 고향이여/내가 들어섰던 조국의 첫 대문이여/너는 언제나 그 이불과 함께 있었다

- 박산운, 「이불」 전문⁵⁹⁾

위 두 편의 시에 나타나는 시적 주체들의 모습은 시대적 전위로서의 청년상과는 다소 동떨어져 보인다. 다른 무엇보다 두 시가 보여주고 있는 감정 구조 때문이다. 『전위시인집』에서는 의도적으로 배격되어 있던 슬픔·비탄·자기 연민이, 위 김상훈과 박산운의 시에는 여과 없이 드러나 있다. “빛나고 아름다워야 할 나이”임에도 두 시편의 청년들은 기성 시인들이 기대한 혁명적 주체로 그려지지 않는다. 은신의 세월이나 보초의 기억은 ‘청춘’의 이름 아래 고난과 영광의 월계관으로 치장되지 않는다. 그 점에서 이들의 시적 문법은 『전위시인집』의 신진 시인들에게 기대되었던 감정 구조 및 문법을 배반한다.

1948년 발간된 유진오의 『창』 역시 지워지지 않은 감상성의 흔적을 시편 속에 고스란히 노출한다. 앞서 살핀 시집의 발문이 투사로서의 청년상을 강조하는 반면, 수록된 시편들은 그에 부합하지 않는 청년의 감상과 애상을 드러낸다. 유진오의 『창』은 전위의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자 하는 시인의 내면과, 그것에 미처 부응하지 못하는 청년의 내면을 동시에 담아냄으로써 전위-청춘이라는 이상적 형상의 균열을 드러낸다.

못자리를 내어놓고/비를 기다리는 농민처럼/깨끗이 방을 치워놓고/행여 날 찾아주는 이 없는가// (.....)//비에 막혀 못 오는 사람이/자꾸만 그리워지면/그만 하늘을 주먹으로/쥐어지르고 싶어진다//—아냐 비는 더 와야 해/농민은 비를 기다리거든—/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호졸곤히 비를 맞으며/부지런히 돌아다니는/동무들이 민망해지면서도//일어날 기력도 없이/호올로 누워 있는 이 방을/환하게 채워주는 그런 사람이/한없이 그리워진다

- 유진오, 「비 오는 날」 부분⁶⁰⁾

속삭임을 주고 받을/동무를 기다려/누렇게 물드는 가로수에/등을 기대면//갑자기 시장기가/별레처럼 기어 내린다//밀려 가는 사람들 사이/이따금 얼굴 익은 동무들이/악수도 없이/눈만을 깜빡이고 지내치는/짙, 가슴 아픈 오늘날이다// (.....)//밤이면 멀리 아득한/별빛 그리워/마지막 가는 날에도/부름 노래/가만 가만 불러 보며//어수선히 디디고 간 발자욱/먼지 속에 싸인 어두운 길 우/타박어리든 발길이 개벼워/간다

58) 김상훈, 「서천월-3월 8일 설야 불침번 입초」, 『대열』, 백우서림, 1947, 92~94쪽.

59) 박산운, 「이불」(1945), 『내가 사는 나라』,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2, 79쪽.

60) 유진오, 「비 오는 날」, 『창』, 정음사, 1948, 45~46쪽.

위 두 시편은 ‘전위로서의 청춘’을 향한 문단의 요구를 빗겨나가는 주체의 모습을 구현한다. 『창』에 수록된 시편 중 일부는 해방 이전의 소산이라고 유진오는 밝히지만,⁶²⁾ 모두 운동원으로서의 ‘동무’를 지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위 두 시는 해방 이전의 작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두 시편은 ‘전위’와 ‘청춘’의 이름 아래 감상성의 소거를 요구받던 시기에 유진오가 쓴 시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데, 그럼에도 위 두 편의 시는 혁명의 불씨로 전환되지 못하는 슬픔의 감정을 고스란히 노출하고 있다.

예컨대 「비 오는 날」의 화자는 농민들이 비를 기다린다는 사실을 안다. 이 순간에도 동무들이 비를 맞으며 운동에 열성이라라는 사실 역시 안다. 그럼에도 그는 임이 자신에게 오는 데에 저어될까 비를 야속해 한다. 혁명적 과업에 대해 무지한 것이 아니로되, 혁명적 과업에 복무하지 않는 내면과 감정의 층위 역시 『전위시인집』 바깥의 청춘에게서는 발견되는 셈이다.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마음은 전위-청춘의 표상에 균열을 가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는 청춘의 또다른 양태이기도 하다. 현실에 투신하는 청춘만큼이나 연모에 마음 줄이는 청춘 역시 청춘이라 일컬어질 수 있다. 이념에 복무하기 이전, 현실에서 발견되는 청춘의 양태는 그와 같이 다채로운 양태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산」에서도 배고픔은 현실 변혁을 위한 의지의 원동력으로 전환되지 못한다. 『전위시인집』의 「기아선에서」에 나타난 배고픔이 현실 변혁의 의지로 치환되었던 것과는 정면으로 대조된다.⁶³⁾ “얼굴 익은 동무들이” 악수도 없이 지나치는 현실은 상황 역전을 위한 분노의 불을 지피지 못한다. 그것은 그저 “가슴 아픈” 감정으로 남을 뿐이다. 그러므로 이 시의 마지막에서 시적 화자는 다만 혼자, 마지막 가는 길에 부를 노래를 조용히 되닐 뿐이다. 집단적 행진의 전망은 끝내 호출되지 않는다. 슬픔은 마지막까지 슬픔으로 고스란히 남는다.

『전위시인집』은 단순한 시 모음집이 아니었다. 그것은 기성 시인들의 전위-청춘 담론에 기여하도록 기획된 시집이었다. ‘전위’와 ‘청춘’의 이름 아래 호명되는 과정에서, 이들의 감정 구조는 의도적으로 재편되어야 했다. 그러나 그것이 온전히 성공적일 수 없었음을 『전위시인집』 전후의 시편들은 암시한다. 이념에의 투신에 적합한 형태로 ‘나’의 내면을 재구축하고자 했던 해방기 문학의 기획은, 적어도 『전위시인집』의 시인들에게서는, 열렬히 시도되었으나 완수되지는 못했던 셈이다. 투쟁하고 달려나가는 『전위시인집』의 전위-청춘의 바깥에는, 비탄과 연민에 가라앉아 전위가 되지 못한 청춘의 모습 역시 있었다. “스스로 옳다고 믿는 이념을 위해서라면 (……) 역사의 용광로 속으로 거침없이 뛰어들어”갔다고⁶⁴⁾ 여겨졌던 전위-청춘의 표상 뒤에는, 전위가 못된 청춘의 모습이 문학사·역사 서술의 전면에 부상하지 못한 채 조용히 가라앉아 있었다.

61) 유진오, 「산(山)」(1946.10.), 『문학』 7, 1948.4, 114~115쪽.

62) 유진오, 「발(跋)」(1947.12.15.), 『창』, 정음사, 1948, 94쪽.

63) 김광현, 「기아선(饑餓線)에서」(1946.2.), 『전위시인집』, 8~9쪽.

64) 정영진, 「육탄시인 유진오의 비극」, 『통한의 실종 문인』, 문이당, 1989, 51쪽.

5. 결론

생각해보면 청춘이라 일컬어져 온 것, 일컬어질 수 있는 것들은 많았다. 열정적으로 행동하는 청춘만큼이나 우울한 청춘도, 망설이고 고뇌하는 청춘도, 연모의 감정에 애달파하는 청춘도, 방황하는 청춘도 모두 청춘이었다. 더군다나 진태원의 지적대로 애초에 단수의 청년은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는 것은 복수의 청년들일 뿐이다.⁶⁵⁾ 그렇다면 애초에 ‘전위시인’의 칭호를 부여하며 신진 시인들에게 단일한 청춘의 상을 요구했던 당대의 기획 담론은, 처음부터 균열을 예비하고 있었는지 모른다.

더하여, 모든 의심과 균열을 배제하고 현실에 적극적으로 투신하게 하는 감정의 구조만이, 진정 ‘청춘’이라는 이름 아래 ‘옳은’ 것으로 정의될 수 있는가? 청춘은 반드시 전위가 되어야 하는가? 청년 담론이 근본적으로 ‘-해야 한다’와 같은 당위적 명령 속에서 형성되어 온 것임을 감안 하더라도,⁶⁶⁾ 당위에 초점을 둔 담론은 결국 교화나 훈육의 담론으로 미끄러져 들어갈 여지가 있다. 상대방을 교화와 훈육의 대상으로 보는 어법은, 사실은 다성적일 수 있는 타자의 목소리를 평면화하거나 은폐할 소지가 있기에 주의를 요한다.⁶⁷⁾

나아가 슬픔과 회의(懷疑)와 망설임을 죄악시키는 담론은, 혁명의 에너지를 응집시키는 데에는 효과적이지만, 그 혁명의 윤리성과 정당성을 묻는 작업에는 상대적으로 의문을 남긴다. 슬픔·회의·망설임의 역할은 당대의 혁명 담론 속에서 적극적으로 사유되지 못했으나, 현재의 시점에서 이러한 성질은 재사유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개인에게 그것은 집단 속 익명적 주체로 스스로를 환원되지 않게 하는 조건이 되며, 사회적으로 그것은 이념의 윤리성을 확보하는 한 가지 조건이 된다. 그렇기에 혁명에서 고려될 수 있는 것은 투쟁의 강도만큼이나 투쟁의 방향이다. 단일 대으로 정렬된 감정의 구조가 전자의 강화에 기여한다면, 해방기 좌익 문단이 정세의 사정상 장려할 수 없었던 ‘망설임의 윤리학’은 후자의 정밀화에 기여할 수 있다.⁶⁸⁾

어떠한 혁명은 회의를 불러일으키는 감정의 기제를 차단하는 방식으로,⁶⁹⁾ 다시 말해 개인의 감정 구조를 혁명에 친연적인 방식으로 재편함으로써 혁명의 동력을 생산해내기도 한다. 그러나 혁명의 이름으로 장악될 수 없었던 내면도, 전위의 호칭 아래 포섭될 수 없었던 청춘의 단면도 분명히 있었다. 해방기 청춘의 내면이 단일한 서사로 정리될 수 없었음을 살피고, 전위와 청춘의 이름 아래 작동하고 있던 감정 규율의 구조를 가시화해보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었다. 다층적으로 존재했던 해방기 현실의 청춘은 당대의 공적 담론 속에서, 그리고 문학사라는 공적 기억 속에서, 온전히 존재할 권리를 얼마간 잃은 채 기록되었다. 해방기 청춘의 중층성과 다성성을 복원하는 작업은 해방기 문학사의 일면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하는 데에도, 멀리는 청춘을 단일한 감정 구조로 환원해 온 후대의 담론들까지를 재검토하는 하나의 관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합니다.

65) 진태원, 「우리 사회의 증상으로서의 청년」, 『황해문화』 103, 새얼문화재단, 2019, 5~6쪽.

66) 소영현, 『문학 청년의 탄생』, 푸른역사, 2008, 50쪽.

67) 우치다 타츠루, 박동섭 역, 『망설임의 윤리학』, 서커스출판상회, 2020, 248쪽 참고.

68) 다음 논의에서 차용하였음을 밝힌다. 우치다 타츠루, 박동섭 역, 『망설임의 윤리학』, 서커스출판상회, 2020.

69) 페터 슬로터다이크, 이덕임 역, 『분노는 어떻게 세상을 지배했는가』, 이야기가있는집, 2017, 127쪽 참고.